

# 한옥마을의 네잎클로버

박서진   박수민   이윤주   최유하



2023 지역연계 프로젝트

2023학년도 지역 연계 프로젝트  
한옥마을의 네잎클로버

박서진, 박수민, 이윤주, 최유하

## 한옥마을의 네잎클로버

발행 | 2023년 11월 20일

저자 | 박서진, 박수민, 이윤주, 최유하

펴낸이 | 팀 네잎클로버 (하나고등학교)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광동 연서로 535

전화 | 4967-2267

이메일 | has\_22076@hana.hs.kr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알 림

본 도서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서울 은평한옥마을을 소재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한옥마을의 설정 혹은 그 외 배경의 경우 허구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알립니다.



## 차례

머리말			6
첫 번째 잎	〈나무〉	박서진	9
두 번째 잎	〈못비〉	박수민	25
세 번째 잎	〈빛과 그림자〉	이윤주	41
네 번째 잎	〈푸른 옷소매〉	최유하	55
작가의 말			71

## 이 책을 시작하며

이 프로젝트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 최대한 간결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1차 주제 설명회에서 임준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꼭 모든 주제가 학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선배들이 한 것들을 볼까요? 논문이나 실험 외에서 영상, 그림, 소설 등 여러 방면에서 융합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13기 여러분도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 후 간식시간에, 유하와 잔치국수를 먹으며 ‘소설’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옥마을의 네잎클로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소한 시작이었기에 한 학기 내내 거의

본 프로젝트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학기는 소재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한옥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추억을 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2학기가 되어서, 다시금 글을 시작하려니 기존에 잡아두었던 소재와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몇 번의 수정과 수정을 거쳐 만들어낸 글들이 이 책의 글들입니다. 놀았던 만큼 몰아치는 일들 사이에서 시간을 조각내 글을 써야 했지만, 놀았던 대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 내려간 글들을 하나로 모아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부끄러워 다시는 펼쳐보지 않을 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보낸 시간은 평생 곁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글을 읽어나가는 이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3. 11. 21

하나고등학교 13기 박서진





## 첫 번째 잎

### 나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다. 묘지는 근처였다.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무릎 위 아버지의 사진도 덜컹거렸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 버스는 마치 롤러코스터라도 탄 양 이리저리 흔들렸고, 차가 튀어 오를 때마다 놀라는 소리도 튀어 올랐다.

차가 멈추고, 선아는 맨 앞에서 사진을 들고 길을 올랐다. 익숙한 길이였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발은 알아서 움직였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흙 속에 누워계셨다. 엄마 옆, 나란히 만들어진 작은 비석. 그 앞에 흰 국화가 놓였다.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가족이 없다는 기분은 꽤 이상했다. 나를 남겨두고 가버린 것에 대한 원망일까, 슬픔일까, 홀로 남은 나에 대한 연민일까. 이미 비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마음 한구석이 그 시린 끝마저 드러내어 버린 듯 했다.

내려와서, 같이 와주신 친척분들께 전부 인사드리고 배웅해 드렸다. 한사코 남겠다 하시는 분들마저 전부 돌아가신 뒤에, 택시를 불러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대자, 이제 갓 붙어지는 잎들이 그 위를 쓸고 지나가는 듯했다. 창밖에 우뚝 선 저 건물숲에도 단풍이 질까. 번쩍번쩍 빛나는 사각기둥들은 자연에 대항하는 듯 차가운 빛을 땅으로 반사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선아는 텅 빈 집을 마주했다. 아버지의 부재. 그 느낌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는 덜했지만, 떠난 자가 피우고 간 묘한 쓸쓸함은 다르지 않았다. 선아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부재가 익숙할 법도 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자신을 혼자 키운 어머니. 선아의 어릴 적은 매일매일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시던 고된 낮의 엄마로 가득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하나둘씩 어머니의 부름에 이끌려 사라지면, 결국 혼자 남아있던 시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항상 화를 내시던 엄마를 보고 자란 적에, 선아에게 아버지라 본디 없는 존재였고 이는 당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홉 살이 되던 겨울, 어떻게 찾으신 건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레 찾아와 어머니께 용서를 빌던 아버지. 엄마는 같이 살자던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때는 엄마가 아버지를 잊지 못해 승낙하셨으리라 짐작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겪었던 힘들음 자식만큼은 겪지 않길 바라셔서 승낙하신 게 아닌가 싶다. 그땐 겨우 9살이었지만, 낯선 아저씨가 찾아오고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엄마는 선아가 21살이 된 겨울부터 아프기 시작하셨고, 투병 끝에 선아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세상을 떠나셨다. 폐암이셨다. 대학을 다니던 중 엄마의 시한부 소식을 들었고, 그 후 약 3년 뒤, 엄마는 파스한 봄볕 아래 눈을 감으셨다.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뒤, 동질감 때문이었던가. 선아와 아버지의 사이는 조금 더 친밀해졌었다.

기억해보면,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늘 창밖을 보고 계셨다. 병원 건물은 답답하다고 투정 부리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어른거린다. 몸이 조금 괜찮으실 때는 병원 내 쉼터라도 짧게 산책하곤 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되셨을 때부터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었다. 다 나으면 산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유지를 받들어 높은 산 위 묘지에 모신 어머니 앞에 서면, 그 아래 들판과 강물이 죽 내려다보였다.

선아는 엄마의 흔적을 더듬었다. 비록 그때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온갖 풀숲과 한옥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현재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부임되기를 기다리는 중인 선아는 시간이 붕 뜨자, 오랜만에 쉬고 여행도 할 겸 어릴 때 엄마와 살던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엄마와 살던 곳은 한옥마을이었다. 북한산 아래에 있는. 택시에서 내리자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었다. 오랜만에 와본 한옥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자연으로 가득하던 곳들에는 어느새 콘크리트 벽들이 세워져 굳건히 뿌리내렸으며, 영어로 쓰인 간판들은 한옥 위에 매달려 번쩍거리고 있었다. 다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서고, 24시간 편의점과 유리로 덮인 박물관이 한옥마을 절반을

차지해 부자연스레 세워져 있었다. 매일 흙먼지 날리던 길은 말끔하게 바뀌어 있었고, 와글거리던 시장 대신 택배들이 집집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선아는 짐을 들고, 길을 따라 죽 걸으며, 옛 흔적을 더듬었다. 선아가 향하는 곳은 한 달간 잠시 빌린 집이었다. 주인이신 할머니분께서 기꺼이 집을 빌려주셨다. 집주인 분은 잠시 손녀딸을 보러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셨다. 따님이 내려오기엔 바쁘시다고.

도착해보니, 그곳은 한옥을 조금 개조한 형태의 단층 주택이었다. 집의 겉모습은 남긴 채로,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한 모습이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의 딸랑이는 소리가 적당한 편안함을 주었다. 집에 도착해서 만난 집 주인 분은 집의 이곳저곳을 설명해주셨고, 선아는 설명이 끝나자 일단 방에 이불을 펴고 바로 꿈아떨어졌다.

깨어보니 벌써 밤이었다. 잠시 짐을 정리하고,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슬리퍼를 짚 짚 끌고 나오자, 오랜만에 마주하는 검은 하늘엔 별이 세 개, 떠 있었다. 두 개는 선명하고, 하나는 흐릿하지만 보였다. 선아는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잘 보이는 게 직녀성이고, 그다음으로 밝은 게 견우성이야. 그리고 제일 먼 별은 백조자리 꼬리에 있는 별이지.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밤하늘의 밝은 별이란단.”

“직녀랑 견우?”

“응, 옛날 옛적에, 견우랑 직녀가 하늘나라에 살았는데, 서로 헤어져서… 그래서 까치가 만나게 해주려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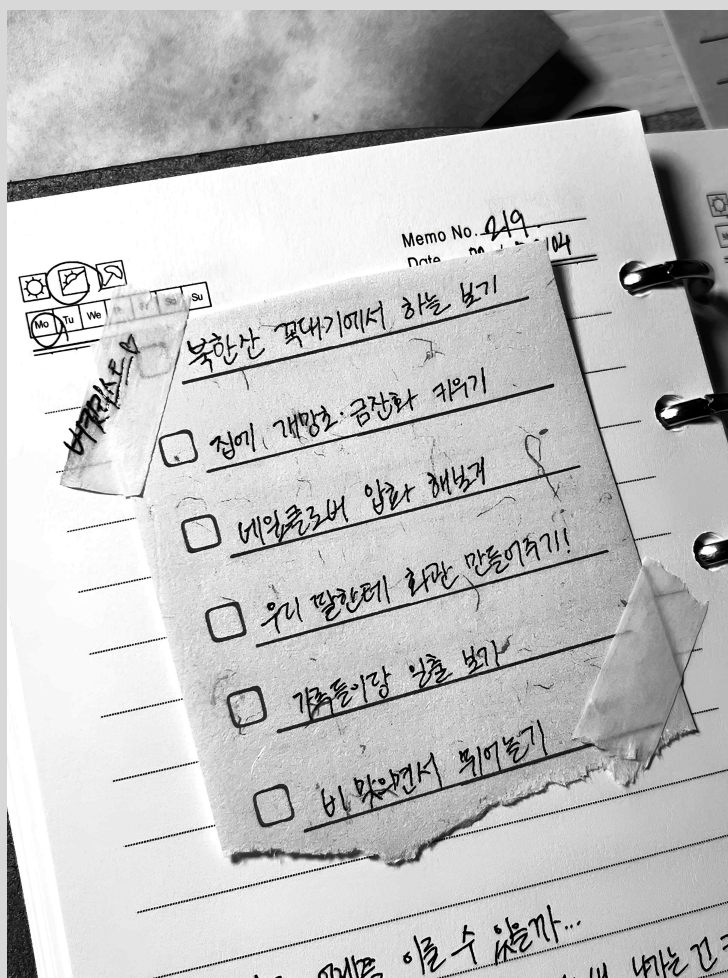
그렇게 선아는 날이 개어 별이 흐릿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청마루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자신에게도 까치가 찾아올까.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듯,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이 갈라놓은 자신과 엄마를 까치와 까마귀가 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이 트며, 저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비몽사몽 한 채, 오전을 전부 뒹굴뒹굴하며 흘려보냈다. 오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가져온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는 예전부터 일기를 자주 쓰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그 노트를 선아에게 주셨다. 엄마가 남긴 몇 없는 유품.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펼쳐보지도 않았던 노트를 여니, 첫 장에는 예전에 선아가 유치원에서 그렸던 그림이 들어 있었다. 지금 보면 마냥 낙서 같았지만, 어머니께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노트에는 선아와 함께한 시간도 적혀 있었지만, 한옥마을에서 살던 때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일기장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 그리도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엄마의 버킷리스트에는 자연과 함께하던 것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다 읽은 선아는 엄마의 버킷리스트를 대신 이루기로 결심했다.



↑ 엄마의 일기장이다. 위부터 순서대로 ‘북한산 꼭대기에서 하늘 보기’, ‘집에서 개망초·금잔화 키우기’, ‘네잎클로버 압화 해보기’, ‘우리 딸한테 화관 만들어주기’, ‘가족들이랑 일출 보기’, ‘비 맞으면서 뛰어놀기’라고 적혀 있다.

적당히 맑은 하루, 푸른 하늘과 살랑이는 바람은 북한산을 오르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등산 채비랄 것도 없어, 적당히 옷을 챙겨 산길로 향했다. 북한산을 오르는 길은 기억과 비슷했지만, 훨씬 깨끗해져 있었다. 푸른 나무들은 여전했다. 소나무, 은행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시간 속에 흩어진 이름들은 안개에 가려진 듯 흐릿해 몇몇 나무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자연에게 15년이란 세월은 작은 시간인가 보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익숙한 나무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헉헉거리며 도착한 산꼭대기에는 몇몇 등산객들이 있었다. 선아는 어색하게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초록 모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갈빛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산 정상에는, 말간 하늘이 있었다.

그다음 날, 꽃집을 지나가다 금잔화가 심어진 화분을 발견했다. 꽃에 물을 주고 있으시던 어머니께 여쭙보자, 금잔화가 맞다고 하셨다. 그렇게 화분을 하나 사서 마당 한쪽에 심었다. 금잔화를 키우다 보니, 그 주변에 개망초가 다른 풀들과 섞여 자라났다. 길게 자란 풀 위에 흔들거리는 작고 수수한 계란후라이는 화려한 금잔화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된 김에 개망초도 키워볼까 하여 다른 곳에 옮겨 심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변의 잡초는 다 뽑아버릴까 싶었다. 하지만 참 특이하게도, 개망초는 파내어 다른 곳에 심거나 주변 잡초를 뽑아낼수록 시들어갔다. 결국 옮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잡초와 함께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자, 개망초는 스스로 자라나 다시 달걀을 피워냈다. 잡초 없이는 개망초도 없었다. 개망초가 예쁜 이유는 주변에 잡초가 있기 때문일까.



자연은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마당은 금잔화와 개망초, 그리고 잡초들로 채워졌다. 어지러이 피어난 모습은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 하루는 대청에 앉아 비를 구경하고, 하루는 직접 마당에 나가 얼굴에 비를 맞았다. 어렸을 때는 자주 비를 맞으며 뛰놀았는데, 언제부터 비가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비를 맞은 뒤, 다음 날 심한 감기에 걸렸다. 금잔화로 차를 내려 먹으며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니, 엄마가 왜 금잔화를 키우고 싶었는지 알 것도 같았다. 엄마가 금잔화를 좋아하던 이유는 금잔화가 약초라서 그랬을까. 여름 장마 때마다 매번 한 번씩 열이 올라 아팠던 나를 위해서였나보다, 짐작할 뿐이었다.

비가 그친 뒤 산책하다 집에서 조금 걸으면 나오는 북한산 어귀에서, 토끼풀을 발견했다. 화관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작고 부족했지만, 어렸을 때 토끼풀로 반지를 만들어 엄마에게 선물하던 기억이 새록 새록 했다. 어렸을 때 기억을 살려, 토끼풀을 뜯어 작은 반지를 만들었다. 마음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다. 반으로 갈라진 풀 사이로 흐른 풀물에, 손이 푸르게 물들었다. 시간이 지나 예쁘게 피었던 풀 반지가 해져 버리자, 그토록 아쉬울 수가 없었다.

비가 그치고 마을 주변을 산책하다, 무심코 쳐다본 작은 카페의 화단에서 클로버 무리가 잔잔히 피어있는 것을 봤다. 오랜만에 쭈그려 앉아 네잎클로버를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다.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열던 중 문살과 바닥 사이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을 수 있었다. 신기한 일이다.

행운만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 행운이 옆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작은 행운을 조심스레 잘라낸 선아는 네잎클로버를 책 사이에 조심스레 끼 두었다.

그렇게 선아는 자연 속에서,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매일 걷고 고민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달 내내 엄마의 버킷리스트를 대신 이루었다.

한 달이 지난 시점, 선아는 발령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선아가 없는 한 달간 서울의 집을 쓰고 있던 사촌 동생으로부터 어서 올라오라는 재촉을 듣고서야, 이곳을 떠나야 함을 실감했다. 선아는 서울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했다. 정들어버린 가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 앞으로는 밤에 찌르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괜스레 아쉬움이 덮쳐왔다. 엄마의 버킷리스트에 쓰인 내용 중 한옥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채웠지만, 마음은 반만 채워진 듯했다.

한옥마을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날은 종일 뭔가 찝찝한 느낌에 시달렸다. 뭔가 잊은 듯한, 그런 느낌. 미련이 남아 그러나, 싶어 집 주변 사진도 찍고 주변 이웃분들께 감사의 편지와 작은 선물도 드렸다. 잘 가라고, 젊은 아가씨라 걱정했는데 잘 지내다 간다니 다행이라고 토닥여 주시는 분들의 애정에 파스함이 넘쳐흘렀다. 마당에 쭈그러 앉아 마당 꽃들에 물을 주고 나머지 짐을 정리하던 중, 엄마의 다이어리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동안 못 보던 사진이었다. 어디서 떨어졌다 했더니, 다이어리 맨 뒤 보관함에 꽂혀

있어 못 봤던 모양이었다.

사진 속에는, 큰 단풍나무 아래서 흙 묻은 손을 들고 브이 자를 그리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해맑은 얼굴은 흙이 묻어 꼬질꼬질 해져 있었지만, 토끼 같은 앞니를 드러내고 웃는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품에 안은 듯했다. 저곳이 어딜까, 고민하던 순간,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타임캡슐이 머리를 스쳐 갔다.

저녁 6시가 다 되어 세상이 점차 어두운 장막을 내리던 시각이었지만, 급하게 옷을 껴입은 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아갔다.

‘우리 선아, 자, 봐봐, 북한산 입구에서 오른쪽 길로 오르다 보면 유난히 붉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를 지나서 중간에 별 모양으로 쪼개져 있는 바위를 찾는 거야. 바위를 지나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엄청 거대한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평평한 곳에 단풍나무 하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거기에, 엄마랑 보물 숨긴 거야. 알겠지? 나중에 찾아올 수 있겠지? 약속~’

배고픈 것도 잊고 한참 동안 산을 뒤흔던 선아는 저녁이 다 되어갈 때가 돼서야 그 나무를 찾았다. 들고 온 작은 삽으로 땅을 파다, 삽 끝에 뭔가 툭. 걸렸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살살 흙을 걷어내니, 아래에는 녹슬고 더러워진 나무 상자가 생각보다 멀쩡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대충 털어낸 뒤, 상자를 조심스레 집어 들었다. 덜컹덜. 녹슨 자물쇠는 여전히 상자 걸쇠를 물고 있었

다. 선아는 머뭇거리다, 자물쇠에 숫자 4개를 천천히 입력했다.

엄마와 물건을 정하고, 상자를 골라 산에 오르고, 그리고 상자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정해 잠그고 다시 찾아오기로 엄마와 약속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의 기억들은 이 상자까지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자신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다.

‘1, 2, 3, 1’

12월 31일. 선아의 생일이었다.

숫자들을 자리에 맞춰 넣자, 자물쇠가 덜컥, 열렸다.

상자 안에는 그때 자신이 골랐던 다 낡아가는 땡땡이 리본 머리끈과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반지, 나뭇가지와 바삭 말라 부서지기 직전인 단풍잎,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었는데…”

그때 나에게 가장 귀했던 물건들. 정작 소중한 건 깨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는데. 편지를 열자, 그 속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있었다. 엄마와 선아가 찍힌 사진. 두 사람은 북한산 꼭대기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사랑하는 엄마 딸 선아에게.

우리 딸, 까먹지 않고 타임캡슐을 찾았다면 너무 장하다!

엄마 없어 찌찌하게 잘 찾아온 걸 보면 이제 다 컸나 보다.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 선아야.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에 엄마를 찾아온 우리 천사.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우리 딸~’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를 확인한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다.

흘러내리는 눈물은 건잡을 수 없었다.

“....고맙다고 말도 못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라고 표현도 많이 못 했는데... 보고 싶어... 매번 짜증 내서 미안했다고. 내가 많이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상자를 안고 한참을 울던 선아는 어느새 태양이 산머리를 지나 저 멀리 가라앉을 무렵, 저녁노을이 상자를 붉은빛으로 물들일 때 집으로 돌아왔다. 닫지 않은 트렁크 위에 상자를 두고 방 안을 둘러보자, 온 집은 엄마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이루며 모은 것들로 가득했다. 이웃집 할머니께서 집 가는 길에 먹으라며 손에 쥐여주신 땅콩과자. 옆집 할아버지께서 직접 찍으셨다는 사진엽서. 자신이 한 달간 키운 금잔화 꽃잎들.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과 책 사이에 넣어 곱게 말린 네잎클로버.

그 모든 순간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넘어 과거와 닿아있었다. 현재의 기억이 과거와 맞물려 돌아간 톱니바퀴는 굳어있던 기억을 두드렸다. 그때, 선아는 깨달았다. 엄마의 버킷리스트는 그냥 자연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었다. 자신과 함께하던 시간이 버킷리스트였다.

엄마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뒤, 세상에 홀로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했다.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엄마는 없었고, 이제 갓 어른이 되어 방황하던 선아에게 엄마의 죽음은 속에 옥여넣어 감추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남긴 건 선아 자신이었다. 별이 사라질 때 남은 가스들이 모여 다시 새로운 별을 만들듯, 선아의

안에 엄마가 있었고 기억의 톱니바퀴는 여전히 살아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아는 엄마가 옆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세 개부터 내가 던고 있던 이 땅과 마을까지. 온 자연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였다. 공허하다 느꼈던 것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 부연 안개가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 작은 새싹이 움텄다.

동쪽에서 빛이 드리울 때, 선아는 짐을 쌌다. 모든 짐을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엄마의 버킷리스트들을 한곳에 모아 곱게 포장해 넣었다. 금잔화 한 송이, 개망초 한 송이, 네잎클로버 압화, 토끼풀 반지, 그리고 타임캡슐까지.

택시가 도착했었다. 핸드폰으로 알림이 날아왔다. 짐을 챙겨 나와 택시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택시에 타기 전, 이 한옥마을을 멀리 둘러보았다. 까치발을 들고 산봉우리 위부터 저 아래 작은 한옥까지. 모든 자연을 눈에 담았다. 마음이 풍성했다.

숨겨두어 쏴아버린 상처와 그리움이 비가 되어 흘렀고, 새싹은 흠뻑 물을 머금었다. 비가 길게 내렸으면 좋겠다. 오래 매마른 땅이 다시 살아나 풀들이 자라날 때까지. 햇빛도 비도, 모두 있어야 식물이 자란다. 오늘은 비가 왔으니, 언젠가 해가 뜨길. 그때는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될 것이다. 나무가 커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기다릴 여유가 생겼다.

새로운 학교, 앞으로 만날 아이들에게 해줄 말을 찾은 것 같았다. 밝은 기대감이 온 심장을 가득 채웠다.

“아가씨, 빨리 타쇼!”

“아, 네!”

택시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내 심장도 같이 쿵쥔댔다. 밖은 완전히 물든 단풍이 날리고 있었다. 왜 몰랐을까. 빛나는 건물숲은 물들지 않지만, 주변 나무들이 예쁘게 물들면 저 부동의 건물숲도 같은 색으로 물들기 마련이었다. 차가운 유리에 흩날리는 단풍이 비치자, 파란 유리는 어느새 노란 잎이 물결치는 바다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의 삶은 얼마나 다를까. 조금 더 단단해진 돌맹이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그 돌맹이가 뿌리내려 거대한 나무가 될 때까지.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 서아야. 나 지금 올라가는 중....”







## 두 번째 앞

### 못 비

한옥마을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아름답게 묻혀 있는 곳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옥의 정취, 수목화처럼 펼쳐져 있는 산의 풍경, 주위 이웃의 따뜻한 마음으로 한옥마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집은 한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든든하게 그 자리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하나씩 쌓아갔다.

동네의 최고령 영자 할머니는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푸근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동네 누구든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쉼터가 되어주셨다. 옆-옆집에 사시는 미경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셨다.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본인의 딸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주시며 함께

놀아주셨다. 또, 부모님 두 분 다 볼일을 보러 나가셨을 때는 나를 대신 돌보아주시기도 하셨다.

무서운 성호 할아버지도 계셨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고,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여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는 꼭 하며 지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좋은 추억을 쌓아갔다. 그러나 누군가의 집에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 명절을 지내거나 담소를 나누는 것을 떠올리며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에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어떻게 할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항상 고민만 하며 지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서 행복한 얼굴로 퇴근하셨다. 항상 밝게 생활하시던 아빠셨기에 큰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다. 물어보려던 찰나, 먼저 말을 꺼내셨다.

“승진도 하고, 본사로도 발령받았어!”

엄마도 너무나 좋으셨는지 아빠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지르셨다. 나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분명 승진하는 것도, 본사에 가는 것도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아 아빠, 엄마와 함께 행복해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며 아빠께서는 무언가 고민을 하시는 듯 보였다.

“아빠, 혹시 다른 무슨 일이 있으세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라고 묻자 아빠께서는 웃는 얼굴로,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어디로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야”

라고 하셨다. 나는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사’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자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에 귀찮을 것 같기도 했지만 새로운 일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서울이라니, 말로만 들었던 화려한 야경이 보이고 높은 빌딩들이 멋있게 펼쳐져 있는 곳이야닌가.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사 갈 날만 기다리기 시작했다.

석 달, 한 달, 일주일, 하루. 이삿날이 다가올 때마다 설렘과 함께 떨림도, 기대감도 점점 커져 왔다. 나는 서울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를 적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경복궁에서 산책하기, 세계 불꽃축제 관람하기, 한강 공원에서 책 읽기, 연예인 콘서트 가보기, 63빌딩 전망대 가보기, 롯데월드 놀이공원 가보기, 청계천 걸어보기, 홍대에서 놀기... 정말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기대되었다. 버킷리스트가 담긴 종이를 꼭꼭 접어 보물상자에 넣으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다.

드디어 이삿날 아침, 많은 사람이 집을 들락날락하며 짐을 트럭에 옮겼다. 내 짐을 직접 옮기고 할 일이 없어지자 정이 많이 쌓인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집에서 조금 가자마자 미경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께서 나오셨다. 나는 할머니를 보자

마자 왜인지 모를 울컥함이 가슴에 일어났다. 서울에 갈 기대 때문에 한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부터 돌보아주신 할머니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어딘가가 허전하고 외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 간다고 여기에 다시 못 오는 건 아니니까, 위안을 삼으며 작별 인사를 드렸다. 또 돌아다니다 보니 혼자 산책하고 계시는 영자 할머니를 뵈 수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예전부터 함께 생활했던 우리 가족이 이사한다는 것에 아쉬워하셨다.

“너희 가족이 있어서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쉽네...”

이 말을 듣자 나도 무언가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 같아 허했다.

“할머니, 또 찾아뵙게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작별 인사를 드리러 다녔다. 아기였을 때 처음 걸음마를 한 곳, 가족들과 돛자리를 펴서 소풍을 하러 간 것처럼 흥내를 내었던 마을 공원,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놀이터, 가장 좋아하는 꽃인 수국이 만개한 곳까지 지나가니 마지막으로 성호 할아버지 댁이 나왔다. 작별 인사는 드려야겠는데, 이렇게 혼자 막상 찾아가니 어색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다시 한번 눌러도 답이 없었다. 돌아가려는 찰나, 뒤에서 “가온아” 이렇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자 할아버지께서 내가 평소에 보았던 표정과 는 어딘가 다른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인사만 드리고 가려 했다.

“이사를 하게 돼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무뚝뚝한 얼굴로 그래, 라고만 말씀해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손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약과를 쥐여주시면서

“꼭 건강하고, 마을이 그리우면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 갈 곳 없으면 여기로 와도 돼”

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눈 주변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를 먼발치에서 지켜보시면서 아껴주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울면 그 전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칠 수 없는 폭포가 될까

“안녕히 계세요. 다시 또 올게요.”

라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오자 이사 준비가 다 끝난 듯했다. 눈에 마을 풍경을 하나하나 담아두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분명 가기 전에는 서울에서의 일들이 마냥 기대되고 기다려지기만 했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올라가게 되니 그런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마을에서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머물렀던 한옥마을인지라 쉽게 떠나보낼 수 없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사 차 안에서 부모님 몰래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2시간쯤 지났을까, 건물들이 숲을 이루는 것 같은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에서만 보았지, 막상 그 속에 직접 들어오게 되니 항상 산과 들판만을 봐왔기에 약간의 갑갑함을 느꼈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적응해보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들어 봐야 꼭대기가 보이는 아파트였다. 새로움과 신기함보다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였다. 그래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던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대를 하고 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광활한 뷰에 살짝 어지러웠다. 온 세상이 나의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멋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유 모를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억누르며 나의 물건을 방에 내려놓았다. 집을 둘러보면서 한 치 앞도 모를 앞으로의 생활을 상상해보았다. 한옥마을에서 정성스럽게 썼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이삿날 저녁, 방에서 핸드폰으로 내일 해볼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사 다음 날 하는 세계 불꽃축제 광고를 보았다. 공원에 돛자리를 펴놓고 여유롭게 치킨을 먹으며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불꽃놀이를 보고 대화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모습을 상상하니, 꼭 가고 싶었다. 비록 부모님께서 이사 때문에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망설일 수 없었다.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으며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가족끼리 불꽃축제 가는 거 어때요?”

라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이사 때문에 힘들어서 쉬고 싶었지만, 가온이가 예전부터 기다리고 기대했던 순간임을 알았기에 그러자고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했다.

부모님과 차를 타고 불꽃축제를 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는 매우 신나고, 들뜨고, 설렘했다. 하지만 목적지 부근에 가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고, 차도 역시나 너무 많았다. 제대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빙빙 돌기만 하다 폭죽 터지는 소리만 듣고 축제는 끝나버렸다. 나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축제 장소에서 어렵게 빠져나와 히기집을 달려려 주변에 보이는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기로 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운 대화 소리, 손님과 직원 간의 실랑이, 만취한 사람들의 난동 등 음식을 먹기는커녕 그곳에 있을 수도 없어서 다시 나왔다. 굶주린 배를 감싸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봤다. 여기에서는 내가 살았던 한옥마을의 평화로움과 안정감은 찾아볼 수 없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타인은 신경 쓰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너무나 큰 충격과 환멸을 느껴 다시는 불꽃축제에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한 주가 시작되자 전학 간 학교에 적응하기 바빴다. 친구들은 특별히 착할 것도, 나쁠 것도 없이 무난했다. 하지만 나에게 질문하는 친구도, 말을 거는 친구들도 몇 없었다.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는 것같이 외롭고 소외감이 느껴지려 한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원래 있는 친구들끼리도 별로 대화를 잘 하지 않는 듯했다. 전교생이 함께 놀고 대화하며 하나의 가족같이 지내던 전 학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곳에서는 친구들이 만났다 하면



성적과 공부 이야기만 하고, 서로 이름 모를 신경전을 펼치는 것이  
가온이 눈에 보였다. 자신의 미래를 멀리까지 보고 진정으로 하고 싶  
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일단 1등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  
각하며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은 그 친구들은 전  
학교에서처럼 하나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커닝 나의 숨통을 옥죄어오  
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나날이 힘겨운 한 주가 지나고 유일하게 조금은 숨통이 트  
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주말이 돌아왔다. 이번 주말도 정말 알차  
게 보내고 싶었다. 실현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보던 중 경복궁 산책이 눈에 띄었다. 궁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경복궁에서 산책하기로 마음먹었다.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경복궁에  
도착해 있었다. 광화문은 상상 이상으로 멋있었다. 큰 문의 장엄함이  
나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렇게 경복궁 안에 들어서고 이곳저곳을 돌  
아다니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지 않아 느끼고 싶었던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무언가 불편  
함이 느껴졌다. 한옥마을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전통 방식으로 지어졌  
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산이었는데, 경복궁은 궁의 내부  
에서만 전통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었고, 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궁의 내부와 외부의 괴리를 너무나 크게 느꼈기 때문이다. 건물들이  
도로변을 따라 빼곡히 나열되어있었고, 큰 도로에 정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고즈넉함과 한적함은 고사하고 너무나 정신없음을 느꼈  
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해본 몇 안 되는 경험들에서도 이미 서울, 도시 생활에서의 괴리감과 환멸을 느끼는 나를 발견했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너무도 그리워졌다. 하지만 아빠의 직장 때문에 다시 쉽게 내려가기도 힘든 상황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았다. 어떻게라도 한옥마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도중 한옥마을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옥마을로 잠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쉬운 일이라고만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다시 가서 그 여유로움을 너무나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주를 친구들에게 치이고, 서울에 기대했다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며 나의 고민에는 점점 확신이 생겨갔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후, 서울에 올라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는 완전히 찬성하셨다. 그러나 오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하셨다. 나는 이제 거의 다 커서 그 정도쯤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며 설득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허락해주셨다.

이제 나의 버킷리스트는 서울에서 이것저것 즐기는 것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옥마을로 내려가서 어르신들께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토요일이 되었고, 나는 서울에 올 때만 큼이나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한옥마을로 내려갔다.

차창에 비치는 풍경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에 가까워지자 나의 마음도 점점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와 가장 친한,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던 미경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맞이해주셔서 덩달아 행복해졌다. 할머니 댁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니 무엇이든 혼자 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어렸을 때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음식도 대충 해 드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부실한 식사를 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 봐 걱정되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맛있는 요리를 근사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의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한 다음 마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최고령 영자 할머니 댁으로 갔다. 연세가 많으셔서 동네 분들이 한 번씩 찾아뵈는다고는 하지만, 그분들도 자주 방문하지는 못해 내가 있을 때만큼은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드리거나, 깨끗하게 씻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영자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쌍화차를 사서 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려간다는 생각에 전날 쌍화차를 맛있게 하는 집에서 정성스레 포장해서 할머니께 드렸다. 받아보고 좋아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뻐했다. 이번에도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호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대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려 했더니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오셨나 생각하고 가려다가 그래도 서울에서 처음 내려온 만큼 인사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초인종을 눌렀다. 대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성호 할아버지와 손주 현우, 지우였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지만 왠지 친근하고 귀여웠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자마자 반겨주시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들어와서 같이 있겠냐고 하셨다. 나는 실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여쭙어봤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들과 같이 놀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현우, 지우와 약간 어색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걸 찾고, 계속 놀아주다 보니 저녁때까지 함께 있게 되었다.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현우, 지우는 나를 붙잡으며 다음에 다시 또 오면 안 되냐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다음 주에 내려오면 다시 또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다.

이렇게 매주 어르신들을 돌보고 여러 주민을 만나면서, 한옥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과 행복,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릴 때는 차마 듣고 보지 못했던 한옥마을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한옥마을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나며 마을에서의 고충이 딱 하나 있다면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예전에 생각하고 잠깐 잊었던 사실인데, 주민분들의 고민을 들으니 내가 사랑하는 마을인 만큼, 그 고민을 너무나 해결해드리고 싶

었다. 서울로 올라갔다 한옥마을로 내려갔다가 반복하며 계속 고민을 하다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하셨다. 하지만 아직은 미성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니 지금 여러 준비를 해놓고 성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친구들은 앞만 보고 이유도 모르면서 공부에 집착할 때, 나는 진정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생각에 커피 내리는 법, 디저트 만드는 법, 카페 운영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서울 생활을 버텼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마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 계획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하시며 응원해주셨다. 살 집과 카페 부지가 모두 정해진 뒤, 꿈에 그리던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완전히 한옥마을로 내려갔다. 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내려오기는 했었지만, 아예 여기에서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을 하니 평화롭고 안정된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다. 한옥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주민분들께도 알려드렸다. 이제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모두 좋아해 주셨고, 그 모습을 보는 나도 덩달아 흐뭇해졌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던 중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답소를 나눌 만큼 언제든지 열려있는 카페라는 의

미를 담고 싶어서, 모를 다 낼 만큼 충분히 오는 비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못비”로 정하기로 하였다.

정식으로 “못비”를 오픈하는 첫날, 대부분의 한옥마을 주민분들이 방문했다. 활기 넘치는 모습도, 정겨운 모습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께 행복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 뿌듯해졌다. 주민분들도 연달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해주셨기에 나의 성취감은 높아져 갔다.

부모님께도 이렇게 카페가 잘 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자 너무 기뻐하셨다. 그러시면서, 곧 있으면 아빠께서 정년퇴직하시니까 그 후로 다시 한옥마을에 내려가서 살면서 함께 못비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마침 손님이 많아 바빴던 나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였기에 부모님께 완전히 환영한다고, 얼른 내려오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인기를 얻고, 안정된 약 5년 후, 아빠와 엄마가 내려오셨다. 내려오시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놓으셨다고 했다. 일에 치여 바쁘게 살기는 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외로웠던 터라,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다. 세 가족이 함께 살 집에 이삿짐이 모두 정리된 후, 부모님께서는 창업할 때 처음 내려오고 그 후로 내려오지 않아 어떤 모습인지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상태로 다시 카페에 찾았다. 생각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더 들었는지 카페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 못비에서 내가 직접 내린 차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내가 서울 생활에 힘들어했을 때 함께 지치셨지만,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직장 때문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셨다. 부모님께서서는 정말 아무 느낌 없이 괜찮아 보이셨는데, 나를 위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힘들었다고 투정을 부린 그때의 모습이 괜스레 죄송해졌다. 그래도 이제는 아무 방해 없이 내려와서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 행복하게 헤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한옥마을에 완전한 모습으로 모이게 된 우리 가족은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부모님께서서는 내 카페 일도 도와주시고, 못비가 쉬는 날이면 함께 주변에 놀러도 나가면서, 주민들과 즐겁게 소통도 하고 지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는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한 장 한 장 채워나갔다.

어느 날, 집을 청소하던 엄마는 가온이의 방에 있는 자신이 예전에 주었던 노트를 발견하게 되고, 궁금한 마음에 펼쳐보았다. 그 공책은 가온이가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적은 책의 원고였다. 첫 문장을 보며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옥마을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아름답게 묻혀 있는 곳이었다.”







## 세 번째 잎

### 빛과 그림자

2018년 4월 11일

남자는 건조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언가에 크게 감흥을 느낀 적이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었다. 무난했고, 조용했고, 건조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았다. 기억에 남을 정도의 큰 일 없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의 무난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적당한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래도 취직은 해야겠지, 하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놀랍도록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겨 갔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법밖에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무렵 남자는 지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등학교 동창, 따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종종 안부 연락은 하는 사이였다. 오랜만에 본 지인은 학창 시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해있었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남자는 행복해 보이는 지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안부를 물으며 자리에 앉았다. 다들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쩐지 스스로의 모습이 초라했다.

지인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학생 때는 익살스럽다는 인상이 먼저 드는 얼굴이었는데 멀끔해진 얼굴이 낯설었다. 남자는 지인이 아내 되시는 분과 잘 어울린다던가, 지인에게 생각보다 검은색이 잘 받는다던가 하는,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식을 구경했다.

식이 진행되던 중, 남자는 문득 구두코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만년필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 잉크도 바뀌가며 꽤 오랫동안 애용하던 것이었다.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학생 시절 시험이 끝난 날에 큰마음을 먹고 샀던 거다. 학생에겐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때는 가끔이라도 오롯이 그 자신을 위해 돈을 썼었던 것도 같다.

잃어버릴 뻔했다는 생각을 하며 주우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주위에서 왈작한 웃음이 터졌다. 신랑 신부가 기획한 이벤트인 듯했다.

문득 남자는 아득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을 둘러싼 모두가 웃고 있었다. 막 주운 낡은 만년필이, 눈앞의 오래 신어 닳은 신발이 그를 비웃었다. 남자는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또다시 질문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결혼식장을 나서는 길에 남자는 통장을 확인했다. 별다른 취미도, 돈 쓸 곳도 없어 미련하게 모으기만 한 그였다. 한번쯤은 조금이라도 그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다.

2018년 4월 12일

남자는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오래 다닌 작은 회사에는 한 달 정도의 유급 휴가를 냈다. 아픈 것이 아니라면 휴가 한 번 낸 적 없던 그가 한 달이나 일을 쉬다는 말에 상사는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별다른 말 없이 허가를 해주었다. 왜 쉬는 건지, 어쩌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었던 남자는 내심 상사의 배려에 약간의 안도와 감사를 느끼며 사무실에서 발을 물렸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남자는 생각했다. 그는 여행을 계획해본 적이 없었다. 아주 어릴 적 가본 가족여행과 학교에서 갔던 수학여행이 남자가 기억하는 여행의 전부였다. 걷다 보면 뭐라도 생각이 나겠지, 하고 그는 집으로 발을 돌렸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10분, 걸어서는 30분 정도의 거리였다. 걸을 만한 거리였으나 남자는 한 번도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다. 길은 길었고 녹은 눈만큼 거리에 봄이 가득했지만 그는 세상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좋아하는 것이 없으니 좋은 줄을 몰랐다. 남자는 어디로 갈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본 적이 없으니 생각은 보편적인 것에 머물렀다. 바다나 산...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남자는 산이었다. 산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바다가

좋은 적이 없어서였다. 그는 언제나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한없이 크고 미끌거리는 거대한 물의 덩어리는 아름답다거나 신비하다기보다는 무서웠고, 그는 바다를 볼 때마다 집어삼켜질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산에 가기로 했다. 산은 질었고, 녹음이 우거졌고. 거대한 품에 안긴 듯이 편안했다. 그래서 남자는 걸으면서 그가 아는 산들을 생각했다.

어릴 때 남자는 녹변동에 살았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지명이 은평으로 바뀐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는 때였으나 남자의 부모님은 언제나 녹변동, 하고 불렀고, 그래서 남자의 고향은 그의 기억 속에서 녹변동이 되었다. 녹변동은 10분만 걸으면 절이 있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곱어보고, 거대한 산맥이 둘러싼 곳이었다. 돌아보니 일찍이 독립하고 본가는 이사해 20년 동안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남자의 눈길이 길가의 민들레에 머물렀다. 봄이구나. 그 외의 감흥은 없었다. 남자는 문득 산에 가면, 그가 살던 산 아래 마을에서 살면, 어쩌면 무언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는 너무 무뎌져 있었고, 산은 그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2018년 4월 20일

남자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그가 부른 택시가 왔다. 남자는 차가 있었고, 운전도 할 줄 알았지만, 차는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별로 많이 이동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묵기로 한 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새로 생긴 한적한 한옥마을의 작은 카페가 딸린 계

스트하우스였다. 목소리로 보건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같았던 주인 분은 대뜸 한 달을 묵고 싶다고 서툴게 말했는데도 담백하게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로울 텐데 괜찮겠냐 물었다. 남자는 괜찮다고 말했다. 한적하다기에 더 끌렸다. 남자는 자신에게 지쳐 있었다. 그럴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남자는 잘 알았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분은 또 담백하게 그러냐고, 다행이라고 말하며, 별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걸 봐도 신경 쓰지 말라 덧붙였다. 남자는 쥐라도 있나 싶었지만 그런 걸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었고, 별 건 아니라니 그대로 믿고 이내 관심을 거두었다.

20년 만에 도착한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다. 길에서 보기에겐 큰길 옆에 대뜸 한옥마을이 있고, 별다른 간판도 없고 건너편에는 처음 보는 웬 학교가 있기에 남자는 이게 뭔가 싶었다. 하지만 택시는 그를 내려두고 가 버렸고, 남자는 한옥마을 입구 앞에 덩그러니 섰다. 북한산이 훤히 보이니 경치는 참 좋았다.

다른 도리도 없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냥 웬지 그랬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한 도전이었으므로 그랬으면 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새로 지어진 한옥 이상의 어떤 생각은 들지 않는 외관이었다. 한옥, 그 오랜 역사의 상징 같은 건축물이 새 것 같은 - 새 것이 맞았다 - 나무와 기와로 반들거리는 모습은 영 어색했다. 하지만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으므로 남자는 희게 반짝이는 손잡이를 당겼다. 손잡이에 새겨진 까마귀가 반기는 듯 끼익거렸다.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 볼 때는 상상하지 못할 장소였다. 꼭 안과

밖의 공간이 분리된 것 같아서 남자는 몇 번이나 안에서 밖을 내다 보았다.

입구는 좁았고, 1년 된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낡아있었다. 반투명한 창호에 햇살이 내려서 바닥이 하얗게 빛났다. 남자는 이곳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다. 맨발에 내리는 봄이 따뜻했다.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내 정신 좀 봐,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하는 말이 나긋하고 따뜻했다. 온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사람 내음이 났다. 어찌 되었든 남자는 이곳이, 그의 첫 도전이 꽤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주인 할머니는 목소리가 나긋하고 말이 많지 않으신 분이였다. 남자는 원래 그런 분이실 뿐이지 자신을 배려하는 게 아닐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그게 고마웠다. 할머니는 방을 보여주겠다며 앞장을 서섰고, 복도가 좁았기에 그는 뒤를 따랐다.

좁은 미로 같은 길이 이어졌다. 왜 이렇게 만든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고요하고 포근해서 남자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을 적시는 편안함을 느꼈다. 모서리에서 발을 멈춘 할머니께서 옆을 가리켰다. 고개를 돌린 남자의 시야에 좁고 긴 계단이 보였다. 할머니는 걸음으로 물러나 위층을 쓰시면 된다고 지긋이 웃었고, 남자는 좁은 계단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기껏해야 방일 텐데도 그는 생각했다. 그는 상상력이 그다지 풍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어쩐지 그런 빈약한 상상력마저도 자극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 할머니께서 계시던 곳을 응시한 남자는 어느새

그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햇살은 따뜻했고, 게스트하우스는 고요했다. 남자는 묘한 이끌림을 느끼며 계단에 발을 디뎠다. 위층은 아래층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아래층에는 없었던 방이 있었다. 바닥은 따뜻했고 요가 깔려 있었다. 남자는 온기가 느껴지는 방바닥을 가만히 쓸었고, 작지만 쨍겨온 짐을 풀었다. 한 달간 지낼 곳.. 오래 산 작은 아파트에도 느낀 적 없었던 작은 애정이 피었다. 그것은 그 장소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그의 도전에 대한 그 자신이 보내는 응원이었다. 한 달짜리 휴가는 별로 엄청난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그의 무채색인 세상에 색을 가져오려는 어떤 여정이기도 했다. 반투명한 창호에 빛이 내려서 원목 바닥이 흰 빛무리로 수놓아졌다. 남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에 와 닿는 햇살이 따뜻했다.

그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는 어둑했다. 방바닥은 여전히 따뜻했고, 달빛은 은은했다. 요에 누워서 눈을 몇 번 깜빡인 그는 선잠에 들었다가, 어느 순간 티 없이 맑은 종소리를 들었다. 현실의 것이기에는 너무 맑고, 또 너무 아름다웠다.

남자가 다시 눈을 깜빡였을 때 반투명한 창 사이로 빛줄기가 새어 들어왔다. 그건 햇살도 아니었고 달빛도 아니었으며, 꿈결같이 새하얗게 빛나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을 느껴서, 스르륵 일어나 동창을 열어젖혔다. 남자의 망막에 어둠이 맺혔다. 밝은 풀벌레 소리도 새가 우는 소리도 아스팔트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조차도 없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귀먹은 듯한 적막 속에 검은 요 같은 기



와지붕이 이 앞까지 퍼져 있었고 도로와 차들과 가로등과 예의 그 처음 보는 학교 건물은 어둠이 품에 안은 듯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오로지 그를 깨운 새하얀 빛무리만이 애달프게 점멸했다. 남자는 꺼질 듯하다가도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쫓아 시선을 옮겼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서, 어둠이 눈을 떴다.

2018년 4월 21일

남자는 숨을 들이켜며 눈을 떴다. 창은 열려 있었고 덕분에 따뜻한 햇살이 넘치도록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창이 열려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으나, 무관심한 성격 탓에 열고 잤던가 하고 말았다.

싱송송한 기분을 떨치려 남자는 요를 개키고 방을 나섰다. 또다시 좁은 길이 이어졌다. 남자는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응시하다가 시선을 돌려 햇살이 내리쬐는 복도를 보았다. 그리고 홀린 듯 발을 옮겼다. 그는 이 집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에게서도 위층은 써도 좋다고 하였고, 그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좁은 복도가 한동안 이어졌다. 남자는 눈을 감고 한 겹 창호를 뚫고 내리쬐는 햇살을 느끼기도 하고, 발을 멈춰 창살의 무늬를 눈으로 덧그리기도 하며 그곳이 걸었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첫날은 펍 오래간만의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남자는 노을이 질 무렵 긴 복도를 지나 좁은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서쪽으로 난 창이 없어 어둡혔으나 그는 낮의 고즈넉한 햇살만큼이나 벽등의 불빛이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는 것도 좋았다.

방에는 동창만은 못해도 크기가 있는 서창이 있었고, 덕분에 하얀  
요가 나뭇한 분홍빛의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어쩐지 노을을 덮고 자  
는 것 같아서, 남자는 야릇한 즐거움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는 또 한참...

또다시,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남자의 정신이 또렷하게 맑아왔다. 그는 어제와 같이 은은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동창을 열어젖혔다. 어둠이 그를 보고 있었다.

남자는 아득한 기분에 홀린 듯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의 상체가  
곤두박질할 듯이 창틀에 걸렸다. 어둠은, 남자가 어둠이라고 생각한  
것은 거대한 검은 짐승이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으나 어째  
서인지 그는 그것이 위협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크고  
슬픈 눈이 애달프게 깜빡일 때마다 남자는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고요 속에서 그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만  
이 고막을 두들겼다.

남자를 응시하던 짐승이 눈을 느릿하게 깜빡였다.

그 순간 남자는 순간 그 크고 검고 슬픈 눈에 비친 남자 자신을 발  
견했다.

2018년 5월 15일

삼 주가 지났다. 그의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고 남자는 두려웠다. 이 도전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면, 아까운 한 달을 버려버린 것이라면...

그동안 남자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낮에는 북한산의 절에 방문하기도 했고, 맑은 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하산하기도 했고, 집주인 할머니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몇 시간이고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남자의 세상에는 마룟바닥에 비친 햇살의 흰색도 북한산에 흐르는 이름 모를 내의 푸르고 맑은 비색도 물들어 점점 다채로워 갔으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좋은 줄은 알아도 그가 왜 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답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채도가 낮았다. 남자는 노을이 지는 저녁이 되면 벽등이 내려보는 긴 복도를 지나 좁은 계단을 올라서, 분홍빛 노을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면 남자의 의식이 막 흐려갈 즈음 맑은 종소리가 울렸고, 또 아른거리는 하얀 빛무리가 나렸다.

종소리가 맑게 울리자 어김없이 남자는 창을 열어젖혔다. 적막 속에서 밤마다 가까이 다가온 그것이 건너편 한옥 지붕마저 어둠 속으로 집어삼킬 듯이 가까이에서 서글픈 눈으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또 다시 짐승의 검은 눈에서 자신을 보았다. 죽은 눈이었다. 동창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눈이 남자를 응시했지만 그는 어떤 위험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남자는 짐승을 동정했다. 남자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짐승이 눈을 깜빡였고, 다음 순간 어김없이 남자는 새하얀 햇살이 쏟아지는 방에서 눈을 떴다. 동창이 열려 있었다.

2018년 5월 16일

마지막 날이었다. 남자는 부스스 일어나 동창을 닫고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꼈다. 참 좋았다. 자꾸만 거대한, 검은, 슬픈 눈의 잔상이 떠올랐다.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으나, 그렇다고 남아서 무얼 할지 생각나는 것도 없었기에 남자는 이 정도만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는 미루다가 뒤늦게 마구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을 나서기 전에 짐을 캐리어에 간단히 정리했다. 마지막 날이라니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원목 바닥을 수놓는 햇살의 온기가 오늘따라 발을 잡아끌었다.

저녁이 다 되어 허망하게 걸어 들어오는 남자를 집주인 할머니의 나지막한 부름이 이끌었다. 목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반대쪽 복도에서 발길을 한 번 꺾으니 작은 식탁에 앉은 할머니가 보여서,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색했다. 가만히 서있는 그를 보며 웃은 집주인분이 자리를 권했다. 한 달간 잘 지냈어요, 하고 묻는 말이 따듯했다. 많이 지쳐 보였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에 남자는 어색하게 웃다가 이내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지쳤었던가. 그랬던 것 같기는 했다. 원래의 그라면 이리 계획 없이 무언가를 결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른 평생 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한 것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그 나뭇의 살기 위한 발악이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또다시 눈앞에 아른거리는 슬픈 눈을 애써 무시했다.

가만히 웃던 집주인분은 그 말이죠, 하고 운을 띄웠다. 남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나긋이 웃던 집주인분이 잘 보듬어 주세요, 하고 잇는 말에 주름진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무슨 말씀이시죠, 하는 물음에 집주인분은 조용히 일어났다.

먹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만요, 하나뿐인 삶이잖아요, 먹이로만 칠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보듬어 주지 않으면 너무 커지거든요.

뒤늦게 남자가 그 뜻을 알았을 때 이미 방 안에 주인분은 없었다. 또다시 홀연히 사라진 집주인분이 앉아계시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남자는 복도를 급히 지나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그리고 한 달간 언제나 그랬듯 분홍빛으로 물든 요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한 종소리가 남자의 정신을 깨웠다.

동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창을 연 그는 바로 앞까지 다가온 눈과 마주했다. 새까맣고 커다란 눈이 애달프게 깜빡였다.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너무 커져서 남자를 집어삼킨 먹이었다. 또 그 자신이었다. 시커먼 먹이 그를 집어삼켜서 도무지 남자의 세상은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자는 손을 뻗었다. 그것의 눈이 천천히 감졌다. 감은 눈 위에 남자의 손이 가닿았고 그도 역시 눈을 감았다.

남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고,  
그의 세상은 아름다웠다.





## 네 번째 잎

### 푸른 옷소매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 파아란 하늘이 펼쳐진다. 울울히 흩어진 구름 끝에는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찰랑거리고 있다. 풀들마저 간지러워하는 바람은 정말로 편안했다. 정말 고요한 꿈이었다.

꿈을 꾸지 않는 아이는 요즘 계속 꿈을 꾸고 있다. 처음에는 마냥 신기했다. 눈을 감으면 항상 어두웠던 세상에 요즘 누군가 계속 푸른색을 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되어가던 날, 아이는 이상함을 느꼈다. 아이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고, 꿈에 익숙지 않았던 아이임에도 이 꿈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이 꿈이,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이는 주변에서 꾸는 꿈들에 대해 얼핏 알고 있었다. 아이의 친구들은 정말 희한한 꿈들을 많이 꾸었다. 전날의 악몽 때문에 울면서 일어났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꿈을 꾸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었다.

이러던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꿈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꿈도 아이들과 결혼하는 환상적인 꿈도 아니었다. 꿈들의 뷔페가 있다면 아이의 꿈은 딱 화려한 만찬들 사이 볶음밥 정도의 꿈이었다.

익숙한 멜로디로 시작한 부드러운 선율이 산들바람으로 바뀌고,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푸른색 산이 펼쳐졌다. 하늘은 포근하게 푸르렀고, 그 아래 아이는 가만히 누워있는 그러한 담백한 꿈이었다. 마음이 편해지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아이는 구름과 들판이 만나는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타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하늘만을 주시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별들의 이야기 소리가 유난히 들떠있던 그날 밤, 아이는 하던 공부를 조금은 일찍 끝내고 침대에 누웠다. 차가운 밤공기가 닿기 전 겹싸게 이불로 발끝까지 돌돌 싸매고, 그대로, 그렇게, 조용히, 잠이 들었다.

어느새 아이는 다시 한번 들판에 와있었다. 근래에 비라도 왔는지 싱그러운 풀내음이 아이를 이불 대신 덮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곧장 일어나 기타 선율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흙이 머금고 있던 짙은 향이 진동했다. 아이는 달리면서 날개 처럼 가벼운 자신이 신기했다. 항상 책상에만 앉아 생활하는 아이는 평소 자신의 걸음걸이가 물에 빠진 걸레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마음이 가벼워서일까, 아이는 실바람과 한 몸이 되어 익숙한 멜로디를 향해 풀들 사이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길쭉한 실루엣이 보였다. 가까이 갈수록 기타리스트와 그의 손놀림, 한껏 집중하느라 생긴 미간의 주름이 눈에 띄었다.

*‘푸른 옷소매는 내 기쁨이었죠*

*푸른 옷소매는 내 고결한 마음이었죠*

너무 집중한 탓일까, 의문의 기타리스트는 아이의 인기척을 아직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담백한 선율은 마치 아침 일찍 빵집에서 풍겨 나오는 고소한 버터향과 같았다. 바쁜 등굣길의 학생이었던 아이의 발걸음조차 매번 멈추게 했던 그 강렬한 빵집의 향처럼 기타 소리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였다.

아이는 방해가 될까 조심스레 기타리스트 시야에서 조금은 떨어진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잊고 있었던 어릴 적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여섯 살 때 동네 친구들과 공벌레를 톡 건드려 공으로 만든 다음 손바닥에 올려놓고 서로 웃던 순간, 아홉 살 때 학교 급식에서 나온 군밤을 밤을 좋아하는 엄마에게 주려고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3개월 뒤 엄마와 말라비틀어진 밤을 보고 함께 웃었던 순간, 아이가 바라보던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해준 순간들이 투명 진열대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빵들처럼 지나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비상이야. 비상. 조각들이 녹지 않고 있어!”

어디선가 커다란 목소리가 아이의 눈을 번쩍 뜨게 하였다. 기타리스트는 들고 있던 기타를 들판에 내던지고 고개를 숙여 울기 시작했다. 혹시 아이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불안함으로 차오르던 아이의 눈에 조금은 동글한 생명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거의 무릎을 꿇고 오염을 하고 있는 껍쟁이 기타리스트 뒤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생명체들의 아담한 몸은 더욱 동그랗게 보였다. 그들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2미터가 넘는 기다란 막대기로 계곡의 물을 휘젓고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달고나처럼 생긴 조각들을 계곡물에 쏟아붓고 있었다.

“이 친구도 이제 19살이 되는데, 지금 그 잔잔한 멜로디가 물에 잘도 녹겠네, 녹겠어!”

바위 위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한 명이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잣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소리였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은 더 달콤한 꿈들을 넣어도 안 녹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모두 헛짓거리라고. 이 친구 꿈을 안 꾸지 10년이 넘었으며. 이 계곡은 원래 물이 개미 오줌만큼 흐르고 있었다고!!”

그는 목청을 더 키우고 발을 동동거리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흐느끼던 기타리스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그래도...본사에서 이 물이 유일하게 반응했던 노래가 ...”

“뭐...그 푸른 옷소매인가 퍼런 옷소매인가. 그래서 지금 잘 반응하고는 있고?”

기타리스트는 그의 말에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그의 연주와는 달리 기타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비명에 가까웠다. 아이는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저기...”

아이는 천천히 기타리스트가 울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기타리스트가 아닌 바위 위의 생명체가 먼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

는 자신에게도 화를 내지는 않을지 순간 너무 무서워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와 눈을 마주친 생명체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하던 것을 멈추고 아이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당황했다.

수군수군.

아이는 자신의 등장이 누구를 울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수군수군.

아이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수군수군.

그들은 힐끗힐끗 아이를 향해 결눈질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루시드..’

‘루시드? 루시드는 또 누구지?’ 아이는 생각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아이의 팔을 잡았다. 아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아이의 팔을 잡은 기타리스트는 반 박자 뒤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제발. 제발 불만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놀란 마음은 가라앉았는지 기타리스트는 아이에게 다가왔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울음이 가득찬 그의 목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조각이나 녹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더 열심히 연주하면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천천히 설명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바위 위 목소리 큰(그러나 몸은 작고 동그란) 생명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해. 이제는 전부 끝났다고. 꿈의 주인이 나타났어. 이건 루시드 드림이라고. 이제 우리는 교체되고, 꿈 제조사 자격이 박탈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끔찍하게 지루한 꿈은 무조건 불만접수가 된다고.”

아이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아이는 후회했다. 그냥 평소처럼 평온하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 속에서의 시간을 보낼 걸, 자책했다. 친구들이 말한 악몽이 이런 것이었을까? 친구들 말처럼 아이는 울고 싶었고, 꿈에서 깨어나면 침대보가 젖어있을 것만 같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방송이 울려 퍼졌다.

“루시드 228B22번, 접수 완료. 접수 완료.”

방송과 함께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던 탄식과 울음이 희미해졌다.

그날밤 아이는 또 같은 꿈을 꾸면 어찌지 걱정을 한 채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판이 아니었다. 마치 커다란 기차역같이 생긴 공간에는 알 수 없는 표지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양쪽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창구들이 뚫려있었다. 아이는 저번처럼 함부로 공간을 탐색하다 혹여나 누군가를 또 올리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궁금했다. 그래서 시선만큼은 열심히 옮기며 새로운 장소를 파악하려 했다. 그렇게 아이는 왼쪽 창구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일 거라고 아이는 짐작했다. 아이가 시선을 돌리려고 할 때, 직원은 아이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가만히 서 있겠다는 다짐을 잊은 채 아이는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다가오는 아이를 향해 직원은 크게 웃음을 지었다. 어색했다.

“228B22번 고객님. 역시 꿈이 너무 지루하던가요?”

“네?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도 고객님에게 그 기타리스트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꿈의 제공물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분들에 비해 물의 양이 적기도 하고 달콤한 꿈들이 잘 안녹는 경향이 있어 지난 10년이 넘도록 적절한 꿈을 찾는데 특별 관리부까지 나서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꿈속의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아이는 친절을 노력하는 직원의 말을 끊는 것이 조금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기. 혹시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직원은 계속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여기는 꿈제조사 본사입니다. 고객님의 계시는 곳은 정확히 고객 불만접수센터입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저희 본사에서는 고객님들에게 맞춤형 꿈을 제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의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고객님들이 완전 깊은 꿈속 상태에 머물지 못하고 밖의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자각몽인 것이죠. 루시드 드림!! 자각몽, 암튼.”

“루시드 드림”

“네네. 중요한 것은 저희 본사에서는 이런 분들의 불만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불만접수센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는 의문이 들었다.

“저는 저의 꿈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님의도 모르시는 불만을 찾으시기 위해 오늘 여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하”

직원은 아직도 웃고 있었다. 아이는 도리어 자신이 기가 빨리는 느낌을 받았다. 직원은 옆에서 두꺼운 책을 펼치고 특정 목록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요즘 잘나가는 꿈들입니다. 아주 당도가 높은 꿈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직원은 책장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다.



“자...여기에 있는 꿈이 바로 고객님의 꿈이었는데 보다시피 당도가 거의 0입니다.”

직원은 아이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희도 원래 이런 꿈들은 거의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위권 꿈들도 고객님의 강에는 녹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우연히 이 꿈이 녹았다는 제보를 받고 그 꿈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를 파견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꿈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하. 크나큰 오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진단을 통해 다시 고객님의게 안성맞춤인 꿈을 제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의 꿈을 연주해주시던 기타리스트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의 착각일까? 직원의 웃음이 순간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분은 원래도 수요가 없었던 분이라. 아마 꿈 제조사로 계속 활동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객님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

아이는 생각했다. 그럼 더 이상 그 평온한 꿈은 꿀 수 없는 것인가. 그 아름다운 기타 연주는 어제가 마지막이었던 것일까. 아이는 조용한 꿈이 좋았다.

“저는 지금 꿈이 좋아요. 바꾸고 싶지 않은걸요. 모두가 휘황찬란한 꿈을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상위권 꿈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직원의 표정은 당황한 듯했다.

“그러면 고객님, 그 꿈 조각들이 녹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 거죠. 제가. 그냥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아이는 꿈을 원래 잘 꾸지 않았다. 장래희망 같은 것도 딱히 없었다. 그냥 작은 순간순간들에 행복했고, 작은 성취감들에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노를 저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 주변에서는 걱정들을 했다. 아이에게 충고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얇은 계곡물이 아니라고. 노만 저어서는 엉뚱한 곳에 낙오될 수 있는 커다란 바다라고 말이다.

“태평양을 건너는 선장들 중 지도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도 목표가 있어야, 꿈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지.”

아이가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아이는 나를 생각이 깊었다. 다만 주변에서 내세우는 꿈들에 비해 아이의 꿈은 너무 소박한 것들이었다. 주변에서 꿈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답을 하기에 민망하다고 느꼈기에 아직 꿈을 못 찾았다고 아이는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 아이는 최근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 푸른 옷소매처럼 부드럽게 퍼진 산맥과 누가 물감이라도 칠한 것처럼 청아한 하늘, 그 아래가만히 누워 잔잔한 기타 연주를 듣는 동안 아이는 참 행복했다. 마음이 편안했다. 아이는 그게 참 좋았다. 그런데 이제는 밤의 꿈마저 ‘꿈’이 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이는 울고 싶었다.

“저..고객님? 그럼 일단은 이 꿈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고객님의 의견을 1순위로 둡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 그 꿈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원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다.

“네네. 다행이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객님”

유난히 뒤척이는 소리가 많이 들렸던 밤이었다.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혹여나 악몽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의 방문 사이를 살피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열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확실하다고 아이는 생각했다. 하늘이 너무도 파랬다. 정말 하늘만 바라보아도 기분이 10배는 좋아지는 날씨였다. 특히 가을 햇별을 타고 내려오는 산들바람은 정말 꼭 껴안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다.

아이는 저만치 물들어가고 있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마음까지 물들게 해주는 찬란함에 아이는 나들이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푸른 옷소매는 내 기쁨이었죠  
푸른 옷소매는 내 고결한 마음이었죠  
어?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난 생명과 땅을 걸었어요  
당신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

아이는 스스로 알기도 전에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얼마나 달리지 않아 열 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곳을 발견했다. 어떤 길쭉한 기타리스트가 버스킹을 하고 있었다. 소리가 참 부드럽게 아름다웠다.

다들 모르는 노래인지 조금 서서 감상하다가 가던 길을 갔다. 아이는 떠날 수 없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연주를 느꼈다. 웬지 모르게 울컥했다.

박수소리.

연주가 끝이 났다. 아이는 기타리스트에게 곡의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곡, 그 다음 곡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음악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강 같지 않나요?”

아이는 깜짝 놀랐다. 기타리스트였다.

“한 시간 쯤 저의 연주를 들어주셔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별로 탁월한 연주도 아니었을 텐데.”

“아니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조금 울기도 했는걸요.” 아이는 기타리스트에게 자신의 눈물 자국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감동의 자국이었고, 기타리스트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거 참, 음악가로서는 드림 컴 트루의 순간이네요. 이럴때면 음악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강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꿈이요?”

“저는 예전에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음악을 연주했어요. 내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들 속에 파묻힐 때면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듯이 행복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해요. 음악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을 담은 음정처럼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꿈은 현실에 도피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꿈으로 도망치는 순간순간들로 인해 꿈과 현실이 이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꿈을 꾸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현실감각에 묻혀 살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음악처럼 꿈은 단지 현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인데 말이죠.”

아이는 물었다.

“혹시 곡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푸른 옷소매’가 가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타리스트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걸요. ‘푸른 옷소매’라는 영국 민요랍니다. 웬지 센치해지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요? 물론 지금의 북한산은 푸른 옷소매가 아닌 붉은 옷소매가 더 잘 어울리겠지만.”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네요”

.....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달아오른 북한산과 그 밑에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기와지붕들은 그 어느 거창한 꿈들보다도 아름다웠다.

북한산 아래 한옥마을에는 길바닥에 핀 들꽃마다 소소한 꿈들이 숨을 쉬고 있었다.



## 작가의 말

### 1. 〈 나무 〉, 13기 박서진

한옥마을을 방문할 때면 늘 한옥 카페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 카페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문학 시간에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으로」라는 작품을 배운 뒤, 그 카페에 갈 때면 저 거대한 나무가 씨앗을 내려 바람과 맞서고 또 흘러보내며 버텨낸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고통을 견디고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싹을 내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겪고 또 버티어 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글 〈 나무 〉에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슬픔과 그리움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어 싹을 틔워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겨울나무의 부르트고 터진 살갗에 다시 새싹이 돌아나듯, 우리의 마음속 잠든 나무가 다시 움트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2. 〈 못비 〉, 13기 박수민

학교에서 창밖을 볼 때면, 산으로 둘러싸인 한옥마을의 경치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어떤 날씨가든, 어느 시간이든 그때마다 한옥마을이 가진 고유의 멋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면서 보는 도심의 모습은 저를 마치 숨 막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모습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은 가뜩이나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통을 더욱 옥죄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저의 경험을 독자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 화합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을 주민 사이 단절되어있었던 대화를 하나의 숨결로 연결해준 “못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거창한 교훈도, 가슴을 저리게 하는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바쁜 일상생활에 치여 힘든 여러분에게 잠깐의 ‘쉼’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읽는 동안, 잠깐이라도 가온이가 되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3. 〈 빛과 그림자 〉, 13기 이윤주

이 소설은 주인공이 내면의 그림자, 특히 우울감을 마주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풀어내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외부 세계와 내면 간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한 탓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대한 검은 짐승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이 우

울감은 그의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울은 그의 마음을 가려놓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소설 속 남자와 같이 엄청난 계기가 있지 않더라도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도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사실 소설 속의 한옥마을을 것처럼 낭만적으로 그렸던 이유는 제가 그런 공간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좀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여유를 낼 아주 조금의 여유도 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그런 용기를 어떻게든 내어 간 한옥마을은 남자라는 존재의 외부 세계와 내면을 이어 주는 장치입니다. 남자는 이곳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외부 세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때문에 그는 나아질 수 있었고, 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께도 소설 속의 한옥마을과 같이 당신의 내면을 마주할 기회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 4. 〈 푸른 옷소매 〉, 13기 최유하

저는 항상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숲속 나무들 사이에 서 있을 때면 마치 엄마의 품속에 파묻힌 것처럼 포근했고 따뜻했습니

다. 도시에서는 느끼기 힘든 계절의 변화가 향기로서 질게 풍기는 자연은 저에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숙사 창문을 통해 우렁차게 펼쳐져 있는 북한산은 하나고에서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짝거리는 꿈들과 미래를 향한 크나큰 포부들로 가득 찬 하나고등학교에서 명확한 목표가 없었던 저는 방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뚜렷하게 그려가는 친구들 곁에 있으면 자꾸만 다급해지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한산의 늠름한 자태가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평온함을 소설에 담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꿈들 속에서 지칠 때, 저의 작은 이야기가 삶의 ‘조용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담백한 꿈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맺는 말

이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까지 노력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하나 고등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또 1년간 프로젝트를 맡아주신 김성해 선생님과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2학년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 1년간의 활동이었지만 때론 짜증나는 팀장이자 독선적이었던 저를 믿고 함께 활동해준 사랑하는 팀원 박수민, 이윤주, 최유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시작이 있었고, 마침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모두가 환히 빛나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